

현내면 대진5리 공모 사업 선정 고성군, 생활 여건 개조에 박차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5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성군은 거진9리 푸른고개 마을, 대진2리 신촌마을, 광산리 만산마을, 광산4리 정자평 마을에 이어 대진5리 한나루마을이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진5리는 그동안 강원도의 사전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면 평가 등 지자체 경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23억 원의 사업비(국비 15억 원 포함)가 투입될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으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담장 및 안길 정비 등 기반 시설 정비와 주택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진5리 한나루마을은 114가구 189명이 거주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 마을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곳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진5리 한나루마을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노후주택 정비, 마을 안길 및 노후 담장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경상북도 봉화군은 2일 봉화농협 재산지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봉화 재산 수박 첫 출하식을 열었다

"청량산 재산 수박 구입하세요" 봉화군, 출하식 열고 본격 판매

경상북도 봉화군의 대표 농산물인 청량산 재산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군은 2일 봉화농협 재산지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봉화 재산 수박 첫 출하식을 열었다.

이날 출하식에는 박현국 군수, 권영준 군의회 의장, 금동운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만우 봉화농협 조합장, 생산 농가 등이 참석했다.

봉화의 수박 재배 농가는 361여 호로 면적은 383ha이다. 이 중 재산면의 수박 재배 농가는 대략 56%인 204여 농가 230ha 규모이다.

재산 수박은 해발 400m 이상 준고랭지에서 재배해 높은 일교차와 일조량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착색과 저장성이 뛰어나다.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며 특히 벌채목 등 임산부산물과 콩대, 갯대 등 농산부산물을 발효시킨 재산면 지역의 전통적인 자연산 퇴비를 사용해 맛과 당도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하다.

재산 수박은 비파과 당도검사를 통해 당도 11브릭스 이상 최상품 출하하며 하우스 수박은 이달 한 달간, 노지 수박은 이달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출하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북, 환경부 통합 물관리 일원화 선제 대응

'통합 위원회' 출범... 수자원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이용·배분·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출범하고 1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2024년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북대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는 연구기관·대학 등 수자원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해 연구기관·대학과의 기술 교류와 통합 물관리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견인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 출범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 지역 특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정(2018년 6월12일)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년 6월11일 수립) 및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11월3일 수립)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물관리 최상위 계획 수립은 경북 지역의 맑은 물 공급,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경감과 장래 수자원 전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물의 공급·이용·배분 △가뭄·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물 산업 육성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북 지역 통합 물관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물 부족 해결과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구상 및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출범하고 1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2024년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추진 전략, 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물 관

련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들을 자세히 검토 후 반영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부산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2년 연속 6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발표... 부산의 도시브랜드 매력·가치 세계가 인정

영국의 대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4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4)' 보고서에서 부산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달성했다.

평가 분야는 안정성, 의료, 문화와 환경, 교육, 기반시설(인프라) 총 5개 분야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현지시각

으로 지난달 26일 2024년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종합평가에서 87점을 받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 순위도 작년 이어 아시아 6위를 사수했다.

이는 부산이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80점대 후반의 점수로 '워밍 점프'하게 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022년 종합평가에서만 해도 70점대를 받았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매력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으면서 세계 유수의 도시브랜드 평가 지수들이 부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10일부터 8월18일까지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지난해 망상해수욕장 풍경.

동해시

쪽빛 바다... 넘실대는 파도 동해시 해수욕장 10일 개장

버스킹·비치페스티벌·비치발리볼 대회 등 풍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10일부터 8월18일까지 40일간 6개 해수욕장(망상·망상리조트·추암·노봉·대진·어달)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일 망상해수욕장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해수욕장 근무자·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리는 해수욕장 개장행사(안전지원·제개장식·현판제막식)를 기점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한다.

40일간 열리는 6개 해수욕장의 운영시간은 망상·망상리조트·추암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노봉·대진·어달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6개 해수욕장 모두 수영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망상·추암해수욕장은 성수기인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수영가능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에 시민프리즈론을 비롯해 망상해수욕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불꽃놀이존을 운영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야간안전관리원·망상해수욕장 철도건설목안전관리원·교통주차관리원·질서계도원 등 배치와 안전 관련 장비를

확충한다.

개장 전 6개 해수욕장 백사장 토양 오염도 검사를 5개 물질(카드뮴·비소·수은·납·6가크롬)에 대하여 실시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고 2개 군(장구군·대정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개장 전 1회, 개장기간 중 3회, 개장 후 1회를 실시하여 피서객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설치한 바다신호등으로 실시간 해상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작년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욕 외에 다양하고 알찬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추암해수욕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망상해수욕장에서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2024 동해 비치페스티벌' 합바다·합해와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20회 동트는 동해해 전곡남녀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려 뜨거운 모래 해변을 시원하게 식힐 예정이다.

이선우 관광개발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미공원 내 맨발공원 일원에 조성된 황토볼 산책로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웰빙 관광지 주목받고 있다.

삼척시

삼척 장미공원 '황토볼 산책로' 웰빙 관광지 급부상

시, 세족장·야간 조명시설 갖춘 산책로 3개소 개선공사 완료 오십천 일원 쾌청한 공기... 가족·연인 등 방문객 많이 찾아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척시 장미공원 내 맨발공원 일원에 조성된 황토볼 산책로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웰빙 관광지로 떠올라 주목받고 있다.

삼척시는 장미공원의 기존 자갈 산책로가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내부검토를 거쳐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볼 산책로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

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4월부터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족장과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산책로 3개소의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아름다운 조경과 오십천 일원의 쾌청한 공기로 가족, 연인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는 발의 자극을 통해 치

매에 방지역력 향상·혈액순환·고지혈증 개선·고혈압 당뇨 완화·불면증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황토는 원적외선 방사율이 우수해 지압이나 찜질시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작은 자극만으로도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휴식을 취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추어 새로이 황토볼 산책로를 만들어 개방했다"며 "휴식을 취하고 싶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